

CJ제일제당, “양평 우수목장의 날” 성료



CJ제일제당 생물자원사업부문(대표 유종하, 이하 CJ)은 지난 12월 4일 경기도 양평 할하우스에서 CJ사로 고객과 낙농경영인을 대상으로 ‘양평 우수목장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50여 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우수사례들이 공유되었고, △생산성(305일 성적) △번식성적(공태, 분만 간격) △경영 수익성 등 공정한 심사 기준을 거쳐 총 3곳의 농가(목왕목장, 월드컵목장, 성준목장)가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수상 농가인 성준목장 차종태 대표는 “BCS TOP이 젖소의 몸을 챙겨 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CJ와 함께 하면 목장 경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어 만족감이 크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경기지점 전재원 부장은 “실제 고객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농가를 방문한다”며 “CJ 밀크젠과 수퍼메가믹스는 유량 생산효과와 번식성적을 극대화 시켜주는 제품으로 성적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2015 축산·사료 연구기술대상 시상식 성료



지난 12월 3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5년 카길애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 기술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개인부문에서는 김중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백명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 교수, 한현섭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장이 수상하였으며, 단체분야로는 대한수의 사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은 설립 이래 축산 및 사료분야의 기술 및 연구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축산, 수의, 사료업계인사 및 관련단체를 선정하여, 카길애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23개 단체, 69명의 개인에게 대상을 수여하였다. 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우수한 업적을 시상 하여, 축산사료 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